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사순 제2주일



주님과 우상 파괴자들

랍비 미드라쉬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상 파괴자”(smasher of idols)이다. 그의 아버지 테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여호 24,2) 사람들에게 우상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상점에 들어오는 이들 앞에서 우상을 박살 내며 테라와 전쟁을 벌이곤 했다(Genesis Rabbah 38).

테라가 죽은 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에 몸을 맡기고 세상 곳곳에 천막을 치며 돌아다니는 순례자가 된다. 이 순례를 통해 아브라함은 참된 의미의 우상 파괴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이끌어 내어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게 했다. 이 여정 중에 절대 타자他者이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끊임없이 만나주셨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며(창세 12,10-20; 15,1-21; 16,1-16; 18,16-33; 20,1-18; 21,1-21) 일종의 실존적 변화를 겪게 된다(17,5). 그의 순례는 모리아 산에서 절정에 다다른다(22,1-19).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인생의 가장 달콤한 열매, 곧 이사악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다. 이는 아브라함 자기 자신으로부터 결코 나올 수 없었던 원의와 생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피부에 와닿게 자기와 다른 분이신 하느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끝내 아브라함은 이사악으로 상징되는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인생의 의미의 전부를 하느님께 내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 파괴의 본질을 이루는 행위이다. 우상이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사도 19,26).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과 약속의 실현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1독서)이 드러났다.

오늘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아브라함이 보리라고 기뻐한 예수님의 때(요한 8,56), 그분의 수난과 부활을 지향한다.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 곧 아브라함처럼 자신과 다른 하느님을 섬긴 우상 파괴자들이다(탈출 32-34; 신명 3,23-29; 1열왕 18,1-19,18). 이들이 우리 주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구원 역사 안의 모든 우상 파괴자들이 그 사건에 참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실제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자기 비움과 부활은 온 인류에게 절대 타자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계시하며 우상 파괴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다.

변모하신 주님의 빛에 이끌린 이들은 주님의 자기 비움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으로 초대받는다(“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필리 2,6-10; 2독서). 신앙 선조들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 역시 또 다른 우상 파괴자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타자성을 드러내는 사건들과 타인들 앞에 자신을 비우고, 부활하신 주님의 섭리를 희망하며, 우리와 다르신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자.



조우현 십자가의 요한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주일 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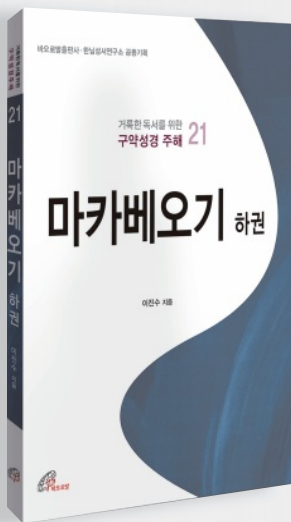
제 1 독 서	창세 15,5-12,17-18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제 2 독 서	필리 3,17-4,1 또는 3,20-4,1
복 음	루카 9,28-36

교구청 신축공사



신축공사 현장에선 따뜻한 봄 날씨에 따라 활기를 띠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공정회의에 추진위원장(최봉원 야고보 신부)을 비롯하여 부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건물 벽돌 색상과 시공과정을 점검하였다. 현재는 본관동 3층 바닥과 사제관동 3층 벽체 거푸집 작업, 그리고 본관동과 사제관 연결통로에 기초 철근배근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제관과 수녀원에 전기통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웅장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작업자들은 무리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공사에 임하고 있다.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이진수 신부
(교구 거창본당 주임)

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 21

마카베오기 하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탈출의 길

마카베오기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복구를 주제로 다루지만, 상권과 하권이 주제에 접근하는 관점은 다르다. 「마카베오기 상권」은 하스몬가의 궁정역사서로서 마카베오가문의 통치권이 확립되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주도권을 하느님이 갖고 계시면서 마카베오가문을 통해 그 목적을 성취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헬레니즘식 역사기술서인 「마카베오기 하권」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학적 중심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안팎의 적들이 성전을 위협하지만 하느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성전을 위협하는 자들을 처벌하신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키슬레우달의 초막절로 불리는 ‘하누카 축제’를 지내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성전 정화와 재건을 기념하는 ‘니카노르 날’을 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 이해하기 ②

마산교구 시노달리타스 위원회

Q. 이번 '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여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대의원 주교들만 참석자였던 이전 세계주교시노드와 달리 하느님 백성 모두가 이번 시노드의 참석자로 초대된 가운데 교구 단계부터 시작하여 대륙별 단계를 거쳐 2023년 본회의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며, '대화'와 '경청', '식별'과 '종합'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1단계〉 교구 단계	〈2단계〉 대륙별 단계	〈3단계〉 보편교회 단계
2021년 10월 17일~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3년 3월	2023년 10월
마산교구 및 한국주교회의 차원에서의 식별	아시아 대륙의 문화적 상황 안에서 식별	바티칸에서 16차 세계주교시노드 본회의

Q. 〈1단계〉 교구 단계에서 우리 '마산교구'는 무엇을 하나요?

A. 1단계는 교구 차원에서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고, 경청하며, 식별하는 과정을 통해 시노드 교회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동반의 여정에는 교회 구성원인 평신도와 수도자 성직자 모두가 참여하고, 더 넓은 의미에서 비신자도 참여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마산교구에서도 시노달리타스 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제 연수, 수도자 연수, 각 사도직단체, 신심단체 연수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강의와 나눔이 있었고, 앞으로 더 넓은 차원에서 대화와 경청, 나눔과 식별이 있을 예정입니다.

Q. 〈1단계〉 교구 단계를 걷고 있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시노달리타스 여정의 첫걸음을 걷는 우리는 제일 먼저 자신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했던 체험을 찾아내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기뻐했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가장 감명 깊었던 일 등을 성찰하며 이런 개인의 체험을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대화하고 경청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시노드 교회를 체험하는 첫걸음입니다.

○ 공동질문

-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기뻐했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 그 체험 안에서 성령께서는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성 요셉에서 유섬이로 이어지는 신앙의 고리 고현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성부자상이 눈길을 끄는 고현성당이다. 성당건물 앞에 아기예수를 안고 선 요셉은 요즘의 아빠처럼 정답다. 본당 주보성인이 '성 요셉'인 고현성당은 성전으로 향하는 신자들이 계단을 오르기 전에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받게 한다.

따뜻한 것은 '보들섬'

따뜻한 것은 비단 성 요셉뿐만 아니라 '보들섬'도 있다. 본당에서 발행하는 주보의 이름인데, 이것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정한 것이다. '잘 보고 잘 들어서 잘 섬기자'란 말을 줄인 이름이다. 4면으로 된 주보에 이 의미를 고스란히 담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부임한 이상원 베네딕토 주임 신부는 신자들 간에 친밀함이 많아지길 희망한다. 어쩐지 친구세대 사이에 낯가림이 있어 보이고 서로 무심하게 지나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더 가까이 간격을 좁히기를 바라며 주보 2면에다 '밥상머리 이야기'란을 열었다. 신자들의 이야기나 칭찬릴레이 같은 글을 시, 수필, 편지 등으로 모집하여 싣는다. 사진을 곁들여도 좋다. 본당 신심단체 활동이나 본당의 행사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그야말로 밥상머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알콩달콩, 시시콜콜, 따뜻한 이야기 마당이 되기를 바라며 주일학교 어린이가 글도 환영한다.

'보들섬'에는 본당 살림살이가 들어있다. 말씀과 공지사항으로 신자들의 신심생활을 지원한다. 그리고 애정 어린 이야기로 나누는 삶이 들어있다. 이 모두가 고스란히 고현성당의 역사가 된다.

역사는 차곡차곡 쌓여

역사는 한 장의 벽돌처럼 작은 일들이 쌓여 이루어지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건너뛸 수 없는 시간이 있다. 고현성당은 1975년 12월 26일 설립되었다. 1979년 소재지인 신현이 읍으로 승격되어 신현성당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1995년 거제시로 승격되면서 다시 고현성당으로 되돌려졌다.

거제지역의 산업화와 더불어 인구유입이 많아졌고 교세도 커지게 되었다. 설립 35주년을 기념하여 성전을 신축하고 2010년 12월 18일 성전축성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문종균 요아킴 형제는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 성당의 자랑"이라고 말한다. 신자들의 희생과 협력으로 이룬 이 건축물은 설계며 자재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3,4백 명이던 신자가 성당 신축 후에는 8백 명이 넘게 되었고 젊은 층이 많아져 활기가 찼다.

이 본당은 자료를 기록하고 남기는 일에도 유념하는 편이다. <신현본당 10년>이란 소책자도 만들었고, <고현본당35년사>를 펴냈다. 지난해에는 <고현성당 사료집 1975~2020>도 20권을 엮어 놓았다. 이것은 설립 5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며, 충실한 50년 역사기록을 위한 주춧돌로 준비했다. 전임 송재훈 라파엘 신부가 시작하였고, 이상원 신부가 부임하여 마무리가 되었다. 이처럼 차곡차곡 쌓은 역사는 고현성당의 자랑이다.

자랑은 많아

자랑은 이어진다. 코로나의 압박으로 신자수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5,6백 명의 신자들이 성당을 채운다. 초등 주일미사에 50명, 중고등부는 40명이 등록되어 20명 정도는 꼬박꼬박 출석하니 그래도 토요일 오후에는 명량한 소리들이 성당에 울린다.

이상원 신부는 교회 구성원들이 코로나라는 타성에 젖어 안일하게 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한다. 위중할 때는 물론 중단했지만 성가든 레지오든 은빛여정이든 방치하지는 않으려고 애쓴다. 마침 청주교구 동기 신부가 작곡한 짧고 쉬운 미사곡이 있어 신자들에게 따라 부르게 했다. 주일미사에서는 같이 부르며 전례 분위기를 북돋우게 되었다. 평일미사에서 합동 레지오를 할 때도 성전 중앙통로에 각 호도를 걸고 각 단원들이 나란히 앉아 레지오 정신을 더하게 했다. 월 1회 진행하는 은빛여정에는 현재 4,5십 명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다. 올해는 신앙적인 면에 더 치중하는 내용을 계획하는 중이다. 그리고 가장 큰 바람은 기존의 묵은 신자들과 새 물결을 따라온 세대들이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신심 단체들이 술선수범하는 활동으로 '원팀'이 되기를 희망한다.

술선수범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

거제 땅에는 복자 유항검의 딸 유섬이 묘가 있다. 마산교구의 소중한 '신앙의 터' 중에 하나다. 2014년에 발견된 유섬이 묘소로 인해 2017년 마산교구 설정 50주년기념으로 '순교자의 딸 유섬이'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고, 교구장 배기현 주교는 "성인이 아니지만 그분의 삶은 너무나 맑고 귀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제 교구에서는 허술하게 놓인 유섬이 묘지 정비를 거제지구에 당부했고, 지구장인 이상원 신부는 이 계획에 몰두하고 있다. 아홉 살 어린 나이에 귀양 와서 일흔한 살에 죽기까지 홀로 삶을 견뎌낸 이의 흔적을 고귀하게 표현할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일에 해박한 문종균 요아킴 형제의 도움을 받고, 지구 본당 사제들과 신자들의 협력과 거제시의 지원으로 올봄에 하루빨리 결실을 거두려고 한다.

고현성당은 지구장 본당이며 규모도 큰 만큼 주임 신부를 비롯하여 주경환 십자가의 요한 보좌 신부, 이 파스칼리아 수녀와 전 아셀라 수녀, 사목위원들과 모든 신자들이 한걸음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기억할 선종 사제
김차규(필립보) 신부
2020년 3월 19일

故 김차규 필립보 신부 2주기 추모미사

일시: 3월 19일(토) 11:00
장소: 칠원성당

본당 사목 방문

일시: 3월 16일(수)
본당: 사천/ 삼천포
일시: 3월 17일(목)
본당: 고현/ 하청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3월 17일(목)
본당: 함안/ 의령/ 덕산동/ 용원/ 여좌동

교구/본당

사제총회

일시: 3월 15일(화)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 간부연수

일시: 3월 19일(토) 14:30~20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지구 및 본당 청년회 간부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및 180일 이내, 3차 접종 후 즉시), 완치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자(연수 당일 아침,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 결과)
참가비: 6만 원
준비물: 마스크, 텀러, 세면도구(수건), 필기구, 미사 준비

신청: 3월 13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채널 '@청년부'검색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오신애(마리아)
담당판사: 김정훈(도미니코)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3월 17일(목)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교구 성경사목부 말씀 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3월 31일(목)까지
문의: 성경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2022년 1학기 전례와 꽃예술학교 수강생 모집

일정: 3월 21일~7월 4일, 15주간
개강일-3월 21일(월) 10:00
장소: 상남동성당
▶기초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20만 원(재료비별도)
대상: 제한없음(성별, 나이, 학력, 종교 등)
▶봉사자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30만 원(재료비별도)
대상: 1)기초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꽃이 5년 이상 봉사자, 3)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자 *3기지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지도자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35만 원(재료비별도)
대상: 1)봉사자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꽃이 5년 이상, 민간자격증 사범2 이상 *1, 2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
문의: 성소국 055·249·7061, 010·9088·4864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3월 기도모임

일시: 3월 21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타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심화피정

일시: 4월 28일(목)~5월 1일(주일)
장소: 수리치골 성모성심약집/ 인원: 32명(1인실)
참가비: 35만 원/ 지도: 허성준 신부(외)
문의: 한릿다 봉사자 010·8599·3127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4월 30일(토)~5월 1일(주일)/
6월 11일(토)~12일(주일)
3박 4일- 4월 7일(목)~10일(주일)/
5월 5일(목)~8일(주일)
8박 9일- 4월 20일(수)~28일(목)/
5월 11일(수)~19일(목)
40일: 9월 14일(수)~10월 23일(주일)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망경동본당 제1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이용민(바오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윤미숙(소피아)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공영태(요아킴)
총무분과위원장: 박홍조(베네딕토), 최수진(토마스 아퀴나스)
재경분과위원장: 전하목(아브라함)
복음화교육분과위원장: 정경리(제마)
전례분과위원장: 신순덕(안나), 나성은(리나)
홍보분과위원장: 윤석주(요셉), 채지인(마리아)
구역분과위원장: 염미선(이사벨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미경(스텔라)
시설분과위원장: 박민석(아나니오)
청소년분과위원장: 박금여(글라라)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3월 19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 : 010-5055-0076

춤추며 주님께로

김연희 크리스티나 시인/ 가톨릭문인회

필리핀 여행 때였다. 마닐라 근교의 꽤 큰 식당에서 일행들과 늦은 저녁을 먹었다. 악사도 서너 명 정도 있었고 식사를 마칠 무렵 식당도 파장이었는데 느닷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연주되었다. 모두 의아하여 아니 이게 뭐야, 이 더운 나라에서 9월에 웬 캐럴? 했다. 가이드 말이 이 나라 사람들을 영어 스펠링이 ber로 끝나는 달이 시작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캐럴을 부르며 축제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을의 크리스마스! 구세주의 탄생을 이렇게 수개월 전부터 고대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민족이 필리핀 말고 또 있나 싶었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방문한 몇 군데의 성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사가 봉헌되는 내내, 마치 잔칫집을 방문한 표정들이며 즐기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우리는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이기에 최대한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봉헌되어야 하는 것으로 배우고 실천해 왔다. 그래서 신부님의 멋진 강론에도 힘찬 박수도 못 보내고 가슴속에 꺾, 꺾 눌러곤 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미사는 축제다. 어쩌면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평화의 인사 때면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며 서로 악수하고 껴안질 않나 퇴장 성가가 불릴 때면 제단 앞으로 나와서 손뼉을 치고 몸을 흔들질 않나 좀 가벼운 듯하였지만, 그들 모두의 표정들은 정말 밝고 즐거우며 진정 하느님을 만난 경쾌한 기쁨의 표시가 온몸에 드러난다. 매사 “기쁨으로 하느님을 섬겨드려라”(시편 100,2)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교민들을 위하여 많은 신부님이 해외로 파견되어 사목하신 지가 꽤 오래되었다. 또한, 외국 신부님들도 이 땅에 오셔서 자국민들을 돌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신부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만남의 축제가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수개월 동안 중단되었다가 연결되기를 몇 차례 반복하면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미사 참례한 것이 얼마나 큰 고마움이었는가를 깨닫는 요즘이다. 고향을 멀리 떠나 타국에서의 삶이기에 그러잖아도 힘든데 만남 자체가 단절되고 하느님 뵈는 일도 쉽지 않으니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땅에 머물면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행복을 영위하면 좋으련만 그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니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믿는 자의 눈에 보이는 길만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느님의 길. 영적으로 다가가는 그 마음의 길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기만 한다는 것을. 세상의 일 무엇 하나 주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으니까. 감사를 반석 삼아 믿음으로 오로지 의지할 곳 주님뿐이니까.

매 주일 15시 창원성산종합복지관 1층 강당. 나는 되도록 그들의 미사에 참여하려고 애를 쓴다. 함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동화되어 축제의 일원이 되어서 큰 은총 받는 것 같아서 더 좋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일에 오히려 도움을 받을 때가 많으니 이 또한 하느님의 큰 역사하심이라.





모세의 시나이산 등장 2(탈출 34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난 순례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십계판을 깨트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곧 계약의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재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고, 그들과 다시 계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돌 판 두 개를 새로 깎아서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튿날 아침 일찍 돌 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산에 올랐을까요? 모세의 첫 번째 시나이산 등정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기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순탄하리라 기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금송아지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본 모세는 이 백성과 함께하는 여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이 백성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조금만 더 순종하는 백성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이 모든 바람을 내려놓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모세로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들과 함께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 백성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는커녕 그 뜻에서 점점 멀어져가지 않는가?’ 어쩌면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나이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의 이런 속마음을 알고 계시거나 한 것처럼 그에게 당신의 자비하신 속성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탈출 34,6-7) 모세에게 계시된 하느님의 이 자비로운 속성은 구약성경 곳곳에서 거듭하여 선포됩니다(느헤 9,17; 시편 86,15; 103,8; 145,8; 요엘 2,13 등 참조). 모세는 하느님의 이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탈출 32-34장에 나타난 모세의 중재 노력은 모두 이스라엘을 떠나시려는 하느님께서 그 의도를 돌이켜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을 체결하십니다. 이 계약 역시 처음 계약처럼 조건적인 계약입니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야만 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느님의 명령은 열 가지 말씀(십계명)으로 선포됩니다(탈출 34,11-26). 그런데 이 열 가지 말씀은 탈출 20장에서 선포된 것과 다소 다릅니다. 주로 전례 의식과 관련된 규정들이 많아서 학자들은 이 십계명을 “의식 십계명”이라 부릅니다. 모세는 첫 번째 시나이산에 올랐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40일간 단식하며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직접 판에 기록합니다. 왜 모세는 단식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40일간의 단식 피정의 결과로 모세는 얼굴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언제 빛이 납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의 얼굴도 환하게 빛납니다. 또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눌러 이긴 사람의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모세의 경우는 이 후자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자비하신 속성을 본받아 그도 역시 하느님처럼 백성을 안고 지고 가리라 결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한 영혼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되실 때, 그 영혼이 자신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얼굴은 모세처럼 빛이 날 것입니다.